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를 통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지은이가 주장하는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런 후에 그 뜻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 지은이가 기록한 내용 중에는 크고 작은 것, 깊고 얇은 것이 있을 수 있다. 또 그것을 표현할 때에도 번거롭고 복잡하거나 혹은 간략하고 단순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을 서술해 기록할 때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곳과 심오한 곳이 있다. 시대에 따라 크게 떠받들고 본받는 것이나 일을 논하는 조목도 마땅히 옛날과 오늘날은 다르다. 이 모든 것을 두루 섭렵했느냐 혹은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 깨닫고 이해하는 데 크게 차이가 생겨난다. 따라서 경전과 역사서에서 물류나 방술에 이르기까지 천지와 인간사에 관한 학설과 이치를 대체적으로나마 알고 있어야 한다.

(중략)

이제 독서를 통해 뒤따르는 사람에게 좋은 교훈을 남기려면, 대체로 책의 번거롭고 복잡한 내용과 이해하기 어려운 글귀나 기이하고 괴상한 내용은 깊이 경계하도록 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사물의 이치를 명확히 밝힌 글이나 이해하기 쉽게 쓴 글과 문장을 권장해야 한다.

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을 읽어야 한다.
 - ② 글이 쓰인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
 - ③ 글에 사용된 표현의 차이를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
 - ④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 가며 읽어야 한다.
 - ⑤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답을 찾아가며 읽어야 한다.

2. ㉠을 고려했을 때, 다음 상황에서 선호가 민수에게 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민수: 선호 형,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도서부에 들어온 민수예요. 아직 책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호: 그래. _____

- ① 글의 내용은 물론 형식적 측면까지 고려하며 읽는 자세가 필요해.
- ②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쉽게 표현된 글을 찾아 읽어 보렴.
- ③ 독서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너만의 독서 기록장을 만들어 활용해 보렴.
- ④ 글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적절한 분량으로 요약하며 읽으면 좋아.
- ⑤ 글을 읽어가며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목적에 맞게 독서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

3. 다음 중 윗글에 드러난 독서를 통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가져야 할 자세를 가장 잘 따른 것은?

- 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라도 최대한 지은이가 서술한 그대로 가르친다.
- ② 배경지식이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은이의 서술을 바꾸어 가르친다.
- ③ 지은이가 기록한 내용 중 오늘날에도 변화가 없는 것을 선별하여 가르친다.
- ④ 지은이가 주장하는 뜻이 명확하여 실천에 옮기기 쉬운 글을 선택하여 가르친다.
- ⑤ 이해하기 번거로운 내용이 등장하면 순서를 바꾸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먼저 가르친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가]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

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 ②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
- ④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⑤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5.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사가 청약에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해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 ②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야 공정한 보험이 된다.
- ③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 ④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6.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7. 밑글의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반환을 청구했다.

- 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 ②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④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⑤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9.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
- ② ㉡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 :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 ④ ㉣ :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 ⑤ ㉤ :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에게는 극복해야 할 사회와 지향해야 할 사회가 있었다. 전자는 인간 사회의 자연적 양상으로, 개인 또는 사회가 자신을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여 폐쇄시키고 타자와의 생존 경쟁과 자기보호에 몰두하는 사회이다. 반면에 후자는 인간 사회의 이상적 양상으로, 개인 또는 사회가 탈국가적인 인류애를 실천하며 인류의 진보를 열망하는 사회이다. 당연히 베르그송이 바란 것은 이상적인 인간 사회로 도약하는 것이다.

베르그송이 문제시한 사회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 유지된다. 사회적 압력은 개인 또는 사회에 사회적 의무와 맹목적인 복

종을 요구하는 거대한 습관의 체계인데, 사회적 결속과 응집력을 지향하는 생존 본능의 산물이다.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구성원은 저항을 최소화하고 이기적인 생존에 몰두하며 사회를 폐쇄시킨다. 본능과 달리 합리성에 토대를 둔 지성은 사회적 억압에 저항하는 측면이 있다. 베르그송은 지성이 개인의 독창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응집력을 해체시킬 수 있고, 일반화와 추상화 능력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유포하며 사회적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데도 일조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베르그송이 본 지성은 사회보다는 자신의 삶에 몰두하는 개인주의적, 이기적 성향을 갖게 만들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베르그송에게 지성의 논리적 설득은 구체적인 실천 행위를 이끄는 데도 한계를 보였다. 베르그송은 지성에 의한 인식이 곧 실천적 의지로 이어진다고 본 전통적 윤리론과는 다른 관점을 취했는데, 그 이유는 자발적 실천 의지가 실제로는 비합리적인 정서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베르그송은 가정에서 교육된 이타주의와 헌신의 정신이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 인류에 대한 박애로 확산될 수 있다는 콩트와 뒤르켐의 생각을 지성의 부당한 양화(量化)라고 비판하면서 지성에 의한 사랑의 점진적, 단계적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베르그송은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창조적 정서를 발견하였다. 창조적 정서는 근원적인 생명의 힘이며 사랑에 대한 열망이다. 이것은 감정과 구분된다. 감정은 신체가 자신에 대해 감각하는 것으로 고통이 그 대표적 사례인데, 창조적 정서는 그러한 단순한 신체적 생물학적인 감정과 다른 것이다. 또한 창조적 정서는 표상들에 의해 산출되는 정서가 아니다. 표상들에 의해 산출되는 정서는 지성-이하(infra-intellectuelle)의 것으로서 주로 심리학의 대상이고, 감정과 지성을 대립시키거나 정서를 표상의 모호한 반영으로 간주할 때의 정서이다. 그러한 정서는 이미 존재하는 도덕 규칙들을 존경하게 만든다. 반면 창조적 정서는 표상을 산출하는 정서로서 지성-이상(supra-intellectuelle)의 것이다. 그러한 정서는 관념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새로운 도덕 규칙들을 창안하도록 만들고, 인간 사회의 이상적인 양상을 가능케 한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창조적 정서의 출현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개인들을 통해 일어난다. 그들은 의지의 천재, 탁월한 도덕성의 소유자이다. 그들은 무엇보다 탁월한 직관력을 가졌다. 직관은 지성과 마찬가지로 생명체의 물질에 대한 행위 능력이자 인식 능력이지만, 지성과 달리 자신의 발생적 원천인 생명과의 공감이다. 즉 직관은 자아의 심층에서 존재의 뿌리와 생명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본능이다. 특별한 개인은 직관을 통해 생명으로서의 실재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약동 자체를 실현하는 활동성을 발현한다. 그런데 베르그송은 창조적 정서가 특별한 개인들만 누리는 자유와 기쁨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창조적 정서가 특별한 개인들에 의해 먼저 발견되고, 그들의 인격적 매력과 호소력이 그 정서를 퍼뜨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고 모방적 실천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인간 사회가 이상적인 양상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형성된다.

10. 윗글을 읽은 뒤 항목별로 정리 및 감상을 적는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목	정리 및 감상
글의 내용	·생존 본능은 사회적 압력을 통해 형성됨...㉠
	·지성은 개인주의적, 이기적 성향을 조장할 수 있음...㉡
	·창조적 정서는 지성-이상의 정서임.
글쓰기 방식	·서두에서 베르그송이 본 인간 사회의 두 가지 양상을 설명하며 논의를 시작함.
	·베르그송의 생각을 이해시키기 위해 전통적 윤리론과 대조함...㉢
글의 가치	·정서를 분류한 뒤 그중 어떤 것이 창조적 정서와 관련 있는지 설명함...㉣
	·인류 사회의 진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친구에게 권할 가치가 있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윗글의 ‘베르그송’과 <보기>의 ‘카를 포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카를 포퍼는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노력에 의해 진리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포퍼가 열망한 사회에서는 개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비판에 대해 개방적이며, 사회의 지배적인 견해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반면에 포퍼가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본 사회에서는, 금기와 마술 속에 살아가는 원시적 종족 사회처럼 개인이 사회의 지배적인 견해를 강요받고, 개인의 판단이나 책임이 철저히 무시된다. 비판적 합리주의 속에서 인간은 서서히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이 포퍼의 주장이다.

- ① ‘베르그송’은 ‘카를 포퍼’와 달리 인간 사회의 이상적 양상을 설정했다.
 ② ‘베르그송’과 달리 ‘카를 포퍼’는 사회를 지배하는 견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③ ‘베르그송’은 비합리성에 의한, ‘카를 포퍼’는 합리성에 의한 사회의 변화를 믿었다.
 ④ ‘베르그송’과 ‘카를 포퍼’ 모두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사회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⑤ ‘베르그송’과 ‘카를 포퍼’ 모두 이성에 의해 사회의 진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나)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견제 하는 그들이
지금 조릿대밭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이름 모를 풀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 벽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A]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들이 ㉠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나지 않았더냐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힘이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
길 따라 그들이 따라 오르는 일
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 이성부, 「산길에서」 -

(다)

개심대(開心臺) 다시 올라 중향성(衆香城) 바라보며,
만이천봉(萬二千峯)을 분명히 헤어 보니
봉(峰)마다 맏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 말거나.
㉠ 저 기운 흘러 내어 인걸(人傑)을 만들고저.
형용(形容)도 끝이 없고 체세(體勢)도 많기도 많구나.
천지(天地)를 만드실 때 자연히 되었건만,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有情)하구나.

비로봉(毗盧峰) 맨 꼭대기 올라 본 이 그 뒤시고.
㉡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느 것이 높던고.

[B] 노(魯)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天下) 어찌하여 작단 말인고.
어와 저 경지를 어이하면 알 것인고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괴이할까.
원통(圓通)골 가느다란 길로 사자봉(獅子峰)을 찾아가니,
㉢ 그 앞에 너럭바위 화룡(化龍)소가 되었어라.
천년(千年) 노룡(老龍)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晝夜)에 흘러 내어 창해(滄海)에 이었으니,
풍운(風雲)을 언제 얻어 삼일우(三日雨)를 내리려는가.
㉣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을 다 살려 내어라.
- 정철, 「관동별곡(關東別曲)」 -

1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자연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②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인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③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내면적 다짐이 드러나 있다.
 - ④ 화자는 시적 대상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자연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고 있다.
1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에서 화자는 슬픈 현실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에서의 삶에 대한 성찰은 ㉣에서 자기반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④ ㉤에서의 현실 인식은 ㉦에 나타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⑤ ㉧에서 화자는 ㉨와 달리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동경이 함축되어 있다.
- ② ㉡에는 대상으로 인한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담겨 있다.
- ③ ㉠은 화자의 체념을, ㉡은 화자의 연민을 환기하고 있다.
- ④ ㉠은 화자에게 자책감을, ㉡은 화자에게 신명을 불러일으킨다.
- ⑤ ㉠과 ㉡에는 모두 대상으로 인한 화자의 비극성이 드러나 있다.

21. [A]와 [B]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비교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산길에서」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면 길이 만들어지듯이, 민중의 삶이 쌓이면 민중의 역사도 이루어진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화자는 현실에서 고통 받는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 ① ‘이 길’은 화자보다 앞선 사람들의 발길로 인해 만들어진 길로 민중의 역사로 볼 수 있겠군.
- ② ‘바람’과 ‘풀꽃’은 화자의 애정이 깃든 대상으로, 화자를 ‘가슴 벅차게 하는’ 존재라 할 수 있겠군.
- ③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은 현실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화자는 그들의 삶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군.
- ④ ‘부질없는 되풀이’는 힘없는 자들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 꺾일 수 있다는 염려가 담겨 있군.
- ⑤ ‘지금 주저앉아서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는, ‘길’을 걷는 화자도 민중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역사의식과 관련이 있군.

23. (다)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관동별곡」은 작가가 기행하면서 자연 경물을 예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가가 지향하는 현실에 대한 의식을 자연물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낙동강 주변 참모래 언덕이라는 뜻의 마삿등 마을에는 사람들이 판자촌을 이루고 살고 있다. 공공 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식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 중 황거칠 씨는 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산에 우물을 파서 물을 끌어 쓰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어느 날 호동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산 수도의 땅이 자신의 형인 호동수가 국가로부터 매입한 땅이라며 산 수도의 철거를 통보한다.

그 황거칠 씨는 그 길로 일제 때부터 그 산을 보아 왔다는 박 노인이란 연고자를 찾아갔다.

“그래요?”

박이란 그 순적백성은 황거칠 씨의 말을 듣더니 비로소 미안스런 표정을 하며,

“㉠호동팔이가 자꾸 찾아와서 돈을 얼마 주며 줄라 쌓길래 도장을 안 찍어 조웃능기요. 머 연고권 서류라카등가요. 내짜 머 그런 거 불하받을 생각도 힘도 없고 해서…….”

㉡황거칠 씨는 ‘아빨싸!’ 싶었다. 손이 늦었었다. 그러나 손이 안 늦었더라도 그에게는 그런 걸 불하받을 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죽일 놈들!”

해 보았댜자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황거칠 씨는 대범한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산에서 솟는다고 산 입자의 물은 아닐 테지!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만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속으로 다짐했던 것이다.

그날 밤 실근이란 통장이 알아보고 온 얘기로서는 S산의 일부인 ‘마삿등’ 뒤의 적산 임야 일대가, 얼마 전 동팔의 형 동수의 명의로 완전 불하등기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주일도 채 못 돼서 법원으로부터 출두 통지서가 나왔다. 호동수가 수도 시설을 철거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물론 황거칠 씨는 이의를 내걸고 반대했다. 그러나 끝다 끝다 결국 힘 부족 세 부족으로 재판에 지고, 집달리가 현장에 나타났다. 강제 철거다. 미리 시끄러울 것을 짐작했던지 경찰관까지 현장에 동원되었다. ‘마삿등’에서도 그날은 일을 나가지

않은 사내 꼭지들은 거의 다 현장인 샬터에 나와 있었다. 아낙네들도 더러 나왔었다. 군중 심리의 탓이랄까, 경찰이 해산을 명령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일촉즉발의 험악한 공기로 되어 갔다.

황거칠 씨는 내쳐 풀이 죽어 있었다. 정상 작량(情狀酌量)도 법을 전사람의 자유다. 게다가 집달리란 사람들에게는 애당초 눈물도 인정도 없게 마련이다. ‘마삿등’ 사람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다섯 개의 수도용 우물이 **집달리가 데리고 온 인부들의 쟁이에 무참히 헐리고**, 대나무로 된 파이프들이 물을 문 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 내던져졌다.

황거칠 씨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일어섰다.

“이 개 같은 놈들아, 어쩌면 남이 먹는 식수까지 끊으려 하노?”

그는 미친 듯이 우르르 달려가서 **한 인부의 쟁이를 억지로 잡아서 저만큼 내동댕이**쳤다. 그것을 계기로 부락민들도 와 몰려갔다. 집달리 일행과의 사이에 벌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이 말려도 듣지 않았다. 결국 동팔이와 인부 한 사람이 이쪽 청년들의 편치에 코피가 터졌다. 경찰은 발포를 -다행히 공포였지만 -해서 겨우 군중을 해산시키고, 황거칠 씨와 청년 다섯 명을 연행해 갔다. 물론 강제 집행도 일시 중단되었다. 경찰에 끌려간 사람들은 밤에도 풀려나오지 못했다. 공무 집행 방해에다, 산주의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폭행죄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튿날도 풀려나오질 못했다. 쌍말로 썩어 갔다. ㉔황거칠 씨는 모든 죄를 자기가 안아맡아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되지 않았다. 면회를 오는 가족들의 걱정스런 얼굴을 보자, 황거칠 씨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만부득이 **담당 경찰의 타협안에 도장을 찍기로**했다. 석방의 조건으로서, 다시는 강제 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였다. 이리하여 황거칠 씨는 애써 만든 산 수도를 포기하게 되고 ‘마삿등’은 한때 도로 물 없는 지대가 되고 말았다.

일행이 구류간에서 풀려나왔을 때는 산에 있는 황거칠 씨의 수도 시설은 완전히 철거되고, 파괴됐던 다섯 개의 우물은 호동팔 측에 의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드디어 소원 성취를 한 동팔이가 ‘마삿등’일대의 수도를 독차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죽일 놈!’

하고, ㉕황거칠 씨가 이를 악물고 있는 판에 뜻밖에 동팔이 측에서 사람을 하나 보내왔다. 용건이 또 걸작이었다. - ‘마삿등’ 일대의 배수 시설을 자기에게 팔든가(물론 헐값으로), 정 놓기 싫으면 자기와 공동 경영을 하자는 것이었다. 아니꼽게도 이쪽의 약점을 노린 수작이었다.

“가거라, 이 개 같은 놈아! 밥을 치먹는 놈이 그따위 심부름을 하고다녀?”

황거칠 씨는 벼락같은 소릴 쳤다. 차라리 거저 내버렸음 내버렸지, 동팔이에게 시설을 판다든가, 더구나 공동 경영 따위 쓸개 빠진 짓은 입에 담기조차 창피한 일이었다. 교섭을 왔던 사람이 코를 찌고 돌아간 뒤에도 그는 내쳐 주먹을 떨어 댔다.

‘누굴 자기 같은 놈인 줄 알았던가? 뻔뻔스런 놈 같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분했다.

배수 시설의 양도를 거절당한 동팔이는 어디 보자는 듯이 ‘마삿등’ 일대에 자기대로의 시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매일같이 많은 물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콩나물 장수, 두부집, 그리고 두꺼비가 그려진 소주의 깃발을 늘어놓고 소주랑 막걸리, 청주까지 만들어서 파는 ‘두꺼비집’같은 데서는 만부득이 호동팔의 물이라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밖에도 동팔이와 특별한 관계 -가령 그의 목수 허드렛일을 맡아 있다든가, 인척 관계인 몇몇 사람들도 그 물을 쓰기 시작했다.

한편, 복수라기보다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러 날 여러 밤을 골똘히 궁리해 오던 황거칠 씨는 드디어 호동수의 산이 아닌 다른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결심했다.

‘어디 제 놈들의 산이 아니면 물이 없을까!’

- 김정환, 「산거족」 -

2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상황과 대비하여 인물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빈번한 교체를 통해 인물의 과거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따른 다양한 시점을 통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5.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호동팔’이 사리에 어두운 노인을 이용해 땅을 샀음을 나타낸다.
- ② ㉒: ‘호동팔’의 계략을 사전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나타낸다.
- ③ ㉓: 산 수도를 지키려는 ‘황거칠’의 의지와 집념을 나타낸다.
- ④ ㉔: 마을 주민들을 대신해 짓값을 받으려는 ‘황거칠’의 희생 정신을 나타낸다.
- ⑤ ㉕: ‘호동팔’이 ‘황거칠’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거칠’은 산 수도의 땅을 살 여유가 없는 가난한 처지에 처해 있다.
- ②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어쩔 수 없이 ‘호동팔’의 물을 쓸 수밖에 없었다.
- ③ ‘황거칠’은 강제 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석방될 수 있었다.
- ④ ‘마삿등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풀려난 뒤 파괴됐던 우물들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 ⑤ ‘황거칠’은 ‘호동수’의 소유가 아닌 곳에 새로운 수도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홀수형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주 진로 시간에 우리 학급은 ‘디지털 기술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는데,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쉽게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강연을 들어 잘 알고 있듯이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요,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문화유산을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여 보존하거나 그것을 가상의 공간에 복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을 활용하면, 파손 정도가 심해서 사라질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자료의 형태로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훼손이 심각하여 현실의 공간에 복원이 불가능한 문화유산을 가상의 공간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화유산을 직접 접하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그러지 못한 적이 있지요?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을 활용하면,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 간접적이지만 문화유산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상 체험 기술과 결합하여 문화유산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석굴암을 가상 체험 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문화유산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만드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관심이 많은데,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에도 관심을 가져 본다면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술은 문화유산 복원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도 관심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 마침 학교와 가까운 ○○ 박물관에서 ‘디지털로 복원한 조선 시대 한양 도성 체험전’이 다음 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한양 도성을 저와 함께 걸어 보지 않겠어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5.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문화유산 복원에 디지털 기술이 유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 성공한 요인을 제시하며 다양한 학술 분야 간의 연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복원의 장점을 소개하며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권유하고 있다.
- ④ 문화유산과 관련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기술의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문화유산 훼손의 근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문화유산복원에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36.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해 사전에 청중을 분석하여 세운 발표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지역
 - 학교 가까운 곳에 박물관이 있으니, 그곳에서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체험을 함께 해 보자고 제안해야겠다...①
- 사전 지식
 -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테니, 문화유산 복원을 디지털 기술과 관련지어 설명해야겠다...②
 -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라는 용어가 낯설 테니, 개념을 설명해야겠다...③
- 요구
 - 발표 내용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니,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해야겠다...④
- 관심사
 -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관심이 많으니,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만든 사례를 언급해야겠다...⑤

37. 다음은 위 발표를 들으며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에게 질문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라 디지털 복원의 가능 여부가 다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 같아.

- ① 발표 내용이 유형 문화유산에만 해당하는 것 같은데, 한옥을 짓는 기술과 같은 무형 문화유산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복원할 수 있는 건가요?
- ② 얼마나 훼손되어야 현실 공간에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게 불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복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문화유산을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어떤 원리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 ④ 문화유산의 복원을 과학 기술의 차원에서만 다룬 것 같은데, 그 외에 제도적 차원에서 문화유산의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개인이 소장한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다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38~42] (가)는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와 (다)는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이 작성한 건의문과 기사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우리가 할 이번 작문 과제가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을 쓰는 거잖아. 혹시 글의 주제를 정했니?

학생 2: 음, 아직 정하지 못했어.

학생 1: 그렇구나. 나는 우리가 지난 일요일에 같이 갔었던 우리 구의 청소년 도서관에 관해 쓸 계획이야.

학생 2: 아, 우리 그때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다가 예전에 비해 도서관이 지저분하고 시끄러워 그냥 나왔잖아. 바로 그 문제에 대해 쓸 계획이구나.

학생 1: 맞아. 우리 구의 청소년 도서관은 도서 대출보다 학습 공간의 제공이 주된 역할인데, 코로나로 인해 학원을 가지 않는 학생들이 몰려서인지 차분히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었어. 도서관이 더 엉망이 되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청장님께 건의문을 쓸 예정이야. [A]

학생 2: ㉡아, 너는 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관리자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니?

학생 1: 응, 나는 구청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봐.

학생 2: 그렇구나. 나는 도서관 이용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했는데.

학생 1: ㉢물론 학생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구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 지난 사회 시간에 ‘깨진 유리창 효과’를 배웠잖아. 지저분한 거리에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함부로 시끄럽게 떠들고 시설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야.

학생 2: 그 수업 시간에 ‘링겔만 효과’에 대해 배운 것도 기억하지? 갑작스럽게 인원이 늘어나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태만에 빠지기 쉽다고 했잖아. 나는 이 문제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태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주인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

학생 1: ㉣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학생 2: 응, 맞아. 학생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금세 더럽고 시끄러워질 거야.

학생 1: 그 방안은 장기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당장의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신문에서 봤는데, 잘 운영되는 다른 구의 청소년 도서관들은 우리 구의 청소년 도서관에 비해 시설도 좋고 관리 인력도 많더라고.

학생 2: 그렇구나. 네가 허락한다면 나도 이 문제에 대한 글을 써 학교 신문에 싣고 싶은데, 괜찮겠니? 도서관 이용 학생 대부분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잖아.

학생 1: ㉤물론 괜찮지.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일인데,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은 거잖아.

학생 2: 그래, 그렇게 하자.

(나) 학생 1의 초고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박△△입니다. 저는 우리 구 청소년 도서관의 관리 문제에 대해 건의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청소년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서관 관리는 이전과 같은 수준입니다.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함부로 떠드는 경우도 많고, 또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도서관 바닥이나 책상이 지저분합니다. 질병 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 올 것이므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에서 발행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우리 구의 청소년 도서관은 다른 구의 청소년 도서관에 비해 관리 인원이 적고 관리 비용도 적습니다. 관련 신문 기사(<https://www.####.co.kr/323454>)를 링크해 두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청장님께 우리 구의 청소년 도서관의 관리 인력을 늘려 주시고, 낙후된 시설을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의 청소년 도서관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부할 곳을 찾지 못한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장소가 될 것입니다.

건의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학생 2의 초고

○○구 청소년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부 학생들의 주인 의식 부재로 인해 도서관이 마치 놀이터처럼 되고 있다. 이에 도서관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구 청소년 도서관은 우리 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의 이용자 대부분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생들이 학원이나 사설 도서관에 가지 못하게 되자 이곳을 찾는 경우가 급격히 늘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 도서관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도서관 내에서 떠드는 학생도 있고, 열람실 안에서 당당히 휴대 전화 통화를 하는 학생들도 있다. 심지어 도서관 좌석이나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학생들도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근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 사회 현상 이론 중 ‘링겔만 효과’라는 것이 있다. 갑작스럽게 사용자들이 늘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도서관 문제 상황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런 도덕적 태만이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도서관을 내 집이고, 내 방이라고 여겨야 한다.

㉢도서관 측도 도서관 정상화를 위해 관리 인력과 시설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이용자인 우리 학생들이 행동해야 할 때이다. 우리 학생들의 관심과 실천으로 도서관의 본 모습을 되찾도록 하자.

38. 대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환기하며 그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 ② ㉡: 사안의 원인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확인하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그와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여 그의 의견이 잘못되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39. [A]의 학생 1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이 제안한 절충안에 동조의 뜻을 밝히며, 그 안을 구체화할 방안을 덧붙이고 있다.
- ② 상대방의 견해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며, 그 견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밝히고 있다.
- ③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자신의 견해가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이 추측한 내용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자신이 방안을 제시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 ⑤ 상대방이 자신의 안을 구체화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며, 자신의 문제 해결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40. (가)의 대화 내용이 (나), (다)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학생 1과 학생 2가 공통적으로 체험한 내용이 (나)와 (다) 모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 ② (가)에서 학생 1이 문제 발생과 관련된 현재의 사회적 상황이 (나)에서 건의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주장하는 이유로 제시되었다.
- ③ (가)에서 학생 1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언급한 사회 현상 이론이 (나)에서 건의 목적의 근거로 직접 언급되었다.
- ④ (가)에서 학생 2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할 때 제시한 사회 이론이 (다)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히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 ⑤ (가)에서 학생 1이 언급한 신문 기사의 내용이 (가)에서 건의 내용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41. 글쓰기 맥락을 고려할 때, (나),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독자에게 필자가 언급한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인터넷 매체 특성을 고려한 글쓰기에 해당한다.
- ② (나)는 필자가 독자에게 제안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글쓰기에 해당한다.
- ③ (다)는 주장에 대한 논거를 제시해 독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설득을 위한 글쓰기에 해당한다.
- ④ (나), (다)는 모두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 행위로서의 글쓰기에 해당한다.
- ⑤ (나), (다) 모두 사회 구성원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점에서 지역 공동체원 전체를 독자로 상정한 글쓰기에 해당한다.

42. <보기>의 점검 기준으로 ㉠~㉣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 문장의 호응이 적절한가?
- ㉡ 앞뒤 문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 ㉢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논거인가?

- ① ㉠을 기준으로, ㉠을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 도서관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로 수정한다.
- ② ㉡를 기준으로, ㉡를 ‘도서관 측도 도서관 정상화를 위해 관리 인력을 늘리고, 시설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로 수정한다.
- ③ ㉢를 기준으로, ㉢를 ‘그리고 문제는 학생들이 이 도서관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로 수정한다.
- ④ ㉣를 기준으로, ㉣를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로 수정한다.
- ⑤ ㉣를 기준으로, ㉣는 ‘도서관 측에서도 도서관 정상화를 위해 대출할 수 있는 도서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로 수정한다.

[43~45] 다음은 교지에 실을 동아리 홍보 글을 작성하기 위한 학생의 생각과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생각: 예상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

- ㉠ 우리 동아리의 특색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까?
- ㉡ 퍼네이션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까?
- ㉢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까?
- ㉣ 우리 동아리의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까?
- ㉤ 가입 후 자신이 무슨 활동을 할지 궁금하지 않을까?

(나) [학생의 초고]

그동안 봉사 활동을 해 온 우리 동아리는 다른 봉사 동아리와 달리 특색 있고 재미있는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퍼네이션과 같

은 기부 활동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퍼네이션(funation)’은 재미(fun)와 기부(donation)를 결합한 말로, 일상에서 재미있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로 기부하는 봉사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얼음물을 뒤집어쓰면서 루게릭병 환자들의 고통을 체험하며 기부금을 모으는 퍼네이션입니다. 주로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가 다음 순번을 지목하여 릴레이로 참여하는 퍼네이션인데,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부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런 퍼네이션 때문에 요즘은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대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기부를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눔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아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나눔의 마음이며, 우리 동아리의 선발 기준도 나눔의 마음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퍼네이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식의 잔반을 줄여 절약한 잔반 처리 비용을 결식아동에게 기부하는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면 관심과 흥미에 따라 다양한 퍼네이션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은 퍼네이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퍼네이션 홍보를 하며 나눔의 경험을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은 여러분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A]

43. (가)의 ‘학생의 생각’이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동아리에서 추가한 활동을 제시하여 ㉠을 반영하고 있다.
- ㉡ 퍼네이션의 개념과 사례를 제시하여 ㉡을 반영하고 있다.
- ㉢ 다른 동아리와의 연계 활동을 제시하여 ㉢을 반영하고 있다.
- ㉣ 동아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제시하여 ㉣을 반영하고 있다.
- ㉤ 가입한 학생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여 ㉤을 반영하고 있다.

44. [A]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눔의 의의를 밝히고, 의문문의 형식으로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면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 나눔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면 여러분의 재능과 나눔의 마음이 더해져 우리 주변은 밝아질 것입니다.
- ㉡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 ㉢ 동아리 활동을 함께하다 보면 친구들과 간의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퍼네이션 게임을 하며 재능을 발견해보지 않으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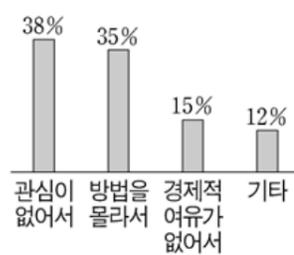
- ㉣ 나눔은 내가 베푸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퍼져 모두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 ㉤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의 재능이 함께하면 나눔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45. <보기>는 (나)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찾은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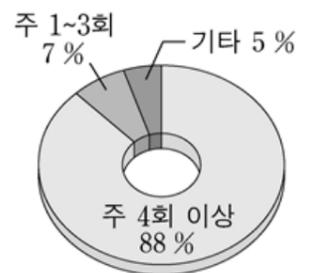
<보 기>

㉠. 우리 학교 설문 조사

㉠-1.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2. SNS 이용 빈도



㉡. 연구자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봉사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할수록 진로 탐색 기회가 많아져 진로 의식의 성숙도가 높아진다.

㉢. 신문 기사

최근 퍼네이션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퍼네이션을 위한 게임 애플리케이션은 재미있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퍼네이션에 자주 참여하고 있다.

- ㉠ ㉠-1을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에서 기부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수정해야겠어.
- ㉡ ㉠-1을 활용하여, 기부 방법을 모르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동아리 활동의 내용으로 제시해야겠어.
- ㉢ ㉠-2와 ㉡를 활용하여, SNS 이용 빈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봉사 활동 참여 빈도가 높아져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보강해야겠어.
- ㉣ ㉡를 활용하여, 우리 동아리에 가입해 퍼네이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진로 의식의 성숙도를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어.
- ㉤ ㉢을 활용하여, 우리 동아리가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이유는 일상에서 퍼네이션에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제시해야겠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홀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형태소가 주위 환경에 따라 음상(音相)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달라진 한 형태소의 여러 모양을 이형태라고 한다. 이형태는 ㉠음운론적 이형태와 ㉡형태론적 이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음운론적 이형태는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형태론적 이형태는 어떤 음운론적 환경의 지배를 받아 변한 형태가 아닌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에는 ‘-았-/~었-/~였-’이 있는데 ‘-았-’은 주로 양성모음 어간에 붙는 형태소이고, ‘-었-’은 주로 음성 모음 어간에 붙는 형태소이므로 ‘-았-’과 ‘-었-’은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변하는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그런데 ‘-였-’은 ‘하다’의 어간 ‘하-’에만 붙는 형태소로 ‘하-’가 양성 모음으로 끝났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였-’이 쓰였으므로 ‘-았-’과 ‘-었-’, ‘-었-’과 ‘-였-’은 형태론적 이형태가 된다.

이러한 이형태는 접사와 어근이 결합할 때도 나타난다.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될 때 그들 상호 간의 영향으로 형태소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휩쓸다’, ‘걸터들다’가 그 예이다. ‘휩쓸다’는 접두사가 바뀌는 예인데 ‘휘젓다, 휘두르다’ 등과 비교하면 ‘휘-’가 ‘쓸다’ 앞에서 ‘휩-’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걸터들다’는 어근이 바뀌는 예인데 ‘터들다’가 ‘터들다’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휘-’와 ‘휩-’, ‘터들다’와 ‘터들다’는 형태론적 이형태로 볼 수 있다.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될 때에도 상호 간의 영향으로 형태소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바느질’, ‘까맣다’가 그 예이다. ‘바느질’은 어근이 바뀌는 예인데 ‘바늘+질’이 결합하면서 ‘바늘’이 ‘바느’로 바뀐 것이다. 이때 ‘바늘’과 ‘바느’는 음운론적 환경과 관계없이 바뀐 것으로, 형태론적 이형태로 볼 수 있다. ‘까맣다’는 접미사가 바뀌는 예인데 ‘까맣다’는 ‘깜+-양+-다’로, ‘꺼멩다’는 ‘끔+-양+-다’로 분석할 수 있다. 어근의 음운 환경에 따라 접미사 ‘-양-/~양-’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것은 음운론적 이형태로 볼 수 있다.

35. ㉠과 ㉡의 예를 모두 볼 수 있는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구어체 명령형 종결 어미로 어간이 양성 모음으로 끝나면 ‘-아라’를, 음성 모음으로 끝나면 ‘-어라’를, 동사 어간 ‘가-’ 뒤에는 ‘-거라’를, 동사 어간 ‘오-’ 뒤에는 ‘-너라’를 쓴다.

ㄴ.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주격 조사 ‘이’와 목적격 조사 ‘을’을 쓰고,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주격 조사 ‘가’와 목적격 조사 ‘를’을 쓴다.

ㄷ. 객체 높임법에서는 문장의 부사어나 목적어의 자리에 오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나이’ 대신에 ‘연세’를, ‘주다’ 대신에 ‘드리다’를, ‘데리고’ 대신에 ‘모시고’ 등의 특수한 어휘를 사용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6.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ㄱ~ㄴ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멤쌀’은 접두사 ‘메-’에 명사 ‘쌀’이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ㄴ. ‘갈가마귀’는 접두사 ‘갈-’에 명사 ‘까마귀’가 결합하여 만들어 졌다.

ㄷ. ‘구이’는 ‘굽다’의 동사 어간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 졌다.

ㄹ. ‘불그데데하다’는 ‘볶다’의 형용사 어간에 접사 ‘-으데데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ㅁ. ‘까끄라기’는 형용사 ‘까끌까끌하다’의 어간에 접사 ‘-아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 ① ‘멤쌀’은 ‘메기장’, ‘메벼’ 등과 비교해 볼 때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할 때 접두사가 바뀌는 예로 볼 수 있다.
- ② ‘갈가마귀’는 ‘까마귀’가 접두사 ‘갈-’과 결합하면서 ‘가마귀’로 변한 것으로,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할 때 어근이 바뀌는 예로 볼 수 있다.
- ③ ‘구이’는 동사 어간 ‘굽-’이 접미사 ‘-이’와 결합하면서 ‘굽-’의 ‘ㅂ’이 탈락한 것으로,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할 때 어근이 바뀌는 예로 볼 수 있다.
- ④ ‘불그데데하다’는 ‘푸르데데하다’와 비교해 볼 때,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할 때 접미사가 바뀌는 예로 볼 수 있다.
- ⑤ ‘까끄라기’는 ‘꺼끄러기’와 비교해 볼 때,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할 때 어근이 바뀌는 예로 볼 수 있다.

3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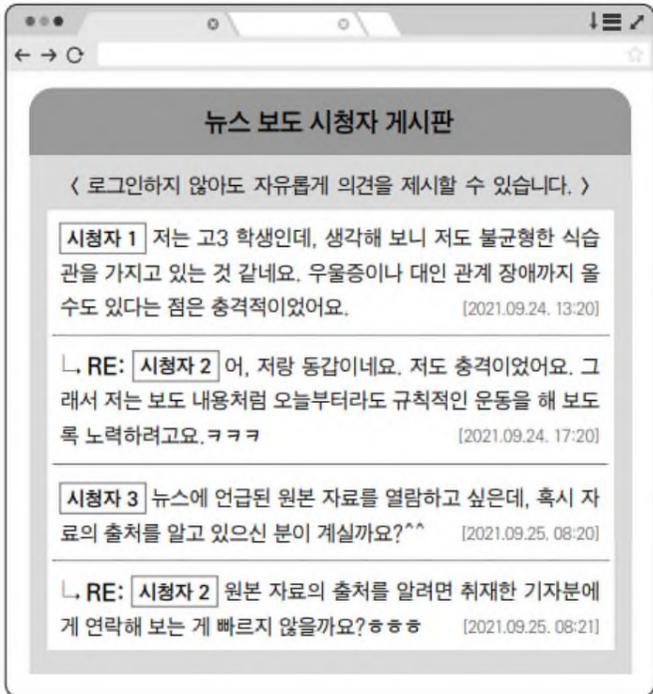
㉡ 갈매기들이 바위 위에서 따스한 햇볕을 즐기고 있다.

㉢ 그 섬에는 높이가 10m를 넘는 동백나무가 수두룩하다.

- ① ㉠의 ‘따스한’은 안긴질의 서술어이고, 안은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한다.
- ② ㉡의 ‘높이가’는 안긴질의 주어이고, ‘동백나무가’는 안은문장의 주어이다.
- ③ ㉠의 ‘가을로’는 안은문장의 부사어이고, ㉡의 ‘햇볕을’은 안긴질의 목적어이다.
- ④ ㉠의 ‘지나가는’과 ㉡의 ‘즐기고’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르다.
- ⑤ ㉠에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가 있고, ㉡에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가 있다.

기자 :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비만이나 과체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느라 규칙적으로 운동을 못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여유가 날 때마다 산책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학습 능률도 높일 수 있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



40. (가), (나)의 매체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매체 생산자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 ② (가)는 매체 생산자가 항상 모든 시청자와 쌍방향으로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③ (나)는 정보 유통에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보 제공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다.
- ④ (나)는 매체 생산자가 소수로 한정되어 있어 유통되는 정보가 폐쇄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 ⑤ (나)는 매체 생산자가 강세, 성량, 억양 등의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41. (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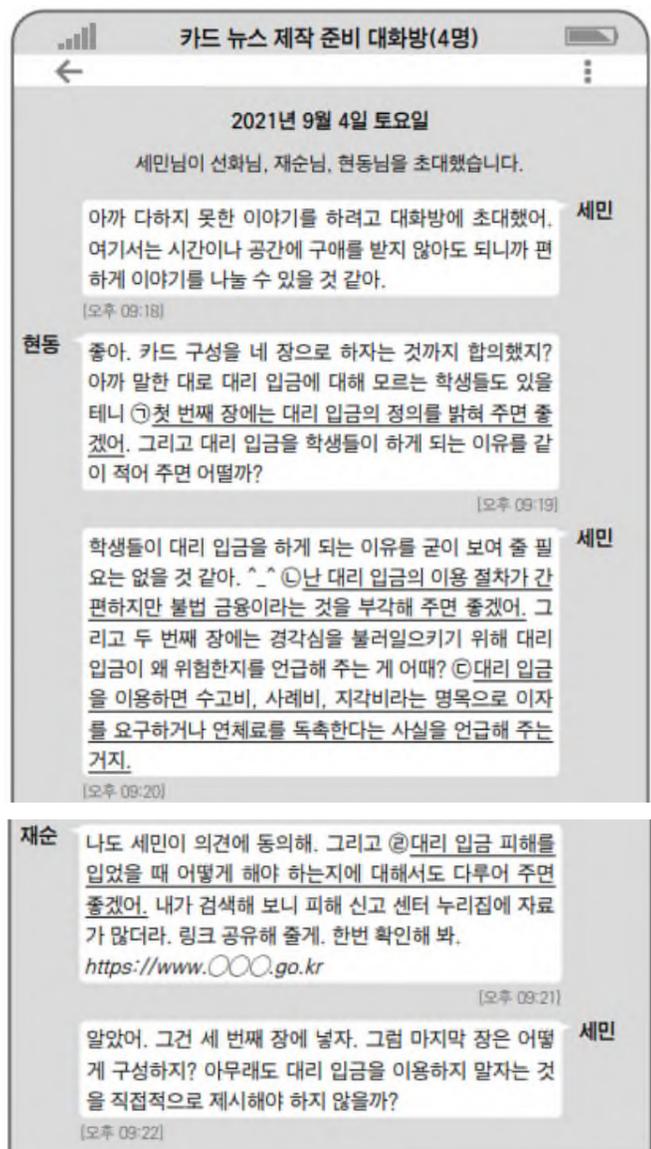
- ① 진행자는 과체중 및 비만과 관련된 교육부 조사 결과의 일부를 언급하며 뉴스 보도를 시작하고 있군.
- ② 기자는 비만이나 과체중의 실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여 뉴스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군.
- ③ 기자는 고등학생 인터뷰 내용에 대해 다른 입장을 제시하며 뉴스 보도의 공정성을 지키고 있군.
- ④ 교수는 인터뷰에서 불균형한 식습관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뉴스 보도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군.
- ⑤ 기자는 비만이나 과체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며 뉴스 보도를 마치고 있군.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격식체의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공적 상황에 맞는 상대 높임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
- ② ㉡: 통사적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어떤 내용이나 상태가 짐작됨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인용 표현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 부정 표현을 활용하여 다른 이유로 인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접속 표현을 활용하여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됨을 드러내고 있다.

[43~45] (가)는 학생들이 카드 뉴스 제작을 위해 휴대 전화 메시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세민'이 만든 카드 뉴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답 및 해설

• 4회 •

정답

1	⑤	2	②	3	④	4	③	5	④
6	⑤	7	①	8	④	9	①	10	①
11	③	12	③	13	③	14	④	15	③
16	④	17	⑤	18	③	19	②	20	④
21	①	22	④	23	②	24	①	25	⑤
26	④	27	④	28	③	29	⑤	30	⑤
31	④	32	④	33	⑤	34	④	35	

해설

[01~03] (독서 이론) 최한기, <인정>

1. [출제의도] 독서 전략 파악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은 배경지식을 활용하며 읽기, 필자의 주장을 파악하며 읽기, 표현의 차이와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며 읽기 등이다.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고 답을 찾아가며 읽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 [출제의도] 독서의 방법 이해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의 내용은 후학들에게 글을 권할 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쓴 글을 권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이 글에서는 독서를 통해 다른 살마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지은이가 주장하는 뜻을 먼저 안 후에 그 뜻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 뒤따르는 사람에게 좋은 교훈을 남기려면,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사물의 이치를 명확히 밝힌 글이나 이해하기 쉽게 쓴 글과 문장을 권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지은이가 주장하는 뜻이 명확하여 실천에 옮기기 쉬운 글을 선택하여 가르치는 것이 윗글의 주장을 가장 잘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책의 번거롭고 복잡한 내용과 이해하기 어려운 글귀나 기이하고 괴상한 내용은 깊이 경계하도록 하고’라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 ② ‘따라서 경전과 역사서에서 물류나 방술에 이르기까지 천지와 인간사에 관한 학설과 이치를 대체적으로나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 ③ ‘시대에 따라 크게 떠받들고 본받는 것이나 일을 논하는 조목도 마땅히 옛날과 오늘날은 다르다. 이 모든 것을 두루 섭렵했느냐 그렇

지 못했느냐에 따라 깨닫고 이해하는 데 크게 차이가 생겨난다.’라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 ⑤ ‘책의 번거롭고 복잡한 내용과 이해하기 어려운 글귀나 기이하고 괴상한 내용은 깊이 경계하도록 하고’라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윗글에 글의 순서를 바꾸어 가르치라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04~09] (사회) 「보험」

<연계 :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 보험자 대위>

4. [출제의도] 중심 화제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글의 중심 화제를 찾기 위해서는 문단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논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글의 1문단에서는 보험의 개념과 특징을 소개한 후, 2문단에서는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3문단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고지 의무를 소개한 후 4, 5, 6문단에서 고지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보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서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다룬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보험사의 상품 판매 전략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다룬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보험 상품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다룬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5.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4문단에서는 고지 의무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에서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을 해야 보험이 해지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2문단에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1문단에서 보험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5문단에서 상법에서 보험사에게 계약 해지권을 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계약 해지권은 보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잘못을 중시하기 때문에 부여하는 권한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6.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에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16.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트랜잭션 T₁은 사용자 A와 B, 트랜잭션 T₂는 사용자 B와 C간에 이루어진 작업이다. 3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각각의 트랜잭션은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두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로그 7’에 ‘T₂, C, 50, 70’과 같이 기록되면 오류가 발생하고, ‘T₂, C, 50, 80’과 같이 기록되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C의 계좌에 20원이 아닌 30원이 이체되어야 데이터가 일관성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 경우라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로그 8’에 ‘T₂, 완료’가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 ② ‘로그 2’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되면, A의 계좌에서 40원이 출금된다. 하지만 B의 계좌에 40원이 이체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로그 3’에 해당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데이터는 일시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낼 것이다.
- ③ ‘로그 2’에서는 A의 계좌에서 40원을 출금하는 작업, ‘로그3’에서는 B의 계좌에 40원을 입금하는 작업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트랜잭션 T₁에서 사용자 B의 계좌에 입금하는 작업보다 사용자 A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작업이 먼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로그 2’, ‘로그 3’에 해당하는 작업을 거치기 전과 후에 사용자 A, B의 계좌 잔고의 합계(100원)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로그 3’이 수행된 직후 트랜잭션 T₁의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 [출제의도]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사용자 A의 계좌에서 출금한 2,000원을 사용자 B의 계좌에 입금하는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는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때 사용자 A의 계좌에서 출금한 2,000원을 사용자 B의 계좌에 입금하는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사용자 B가 자신의 계좌에 1,000원을 입금하는 두 번째 트랜잭션의 작업이 먼저 수행되면 첫 번째 트랜잭션 내에서의 A, B 계좌 잔고 합계가 트랜잭션 수행 전 4,000원에서 수행후 5,000원으로 달라지게 된다. 즉 첫 번째 트랜잭션이 완료되지 않아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트랜잭션이 수행되면서 데이터가 일관성이 있는 상태를 잃어버려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첫 번째 트랜잭션과 두 번째 트랜잭션 모두 수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 A의 계좌에서 사용자 B의 계좌로 2,000원을 이체하는 첫 번째 트랜잭션도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두 번째 트랜잭션만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첫 번째 트랜잭션과 두 번째 트랜잭션이 순서대로 하나씩 수행되지 않고, 첫 번째 트랜잭션이 완료되지 않아 데이터가 일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트랜잭션이 수행되었다. 데이터의 일관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없다.
- ③ 첫 번째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첫 번째 트랜잭션에 두 번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는 ‘격리성’을 가져야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는데,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트랜잭션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첫 번째 트랜잭션과 두 번째 트랜잭션의 작업이 동시에 독립적으로 수행되려 하다가 모두 취소된 바 없다. 또한 해당 작업들이 하나도 실행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18~23] (갈래복합) (가)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나) 이성부, 「산길에서」 / (다) 정철, 「관동별곡」
 <연계 : 수능특강 적용학습 현대시 03강 - 쉽게 씌어진 시>

18.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가)는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의 유학생이라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자 하는 내적 다짐을, (나)는 등산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주저앉아서 안 된다는 내적 다짐을, (다)는 금강산을 여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선정(善政)을 베풀겠다는 내적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② 시적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나), (다)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나), (다)와 무관하다.
- ⑤ (가), (다)와 관련이 없다.

19. [출제의도] 시상의 흐름 파악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시인’이란 현실이 아무리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변화시킬 만한 현실적 힘을 지니지 못한 존재이다. 이를 화자는 ‘슬픈 천명(天命)’으로 인식하고 있고, 현실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 줄 시를 적어’ 보는 방식으로 현실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을 회피하려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밤’이라는 시간과 ‘남의 나라’라는 공간을 통해 화자의 현실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부모님의 노고와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낯은 지식을 가르치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등의 삶에 대한 성찰이 ㉠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자기반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④ ㉠에서의 현실인식 후 ㉡에 나타난 것과 같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게 된다.
- 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에서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은 부모님의 노고와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화자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은 ‘말고 싶어’, ‘신명나지 않았더냐’라는 서술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화자를 신명나게 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부모님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다.
- ② 화자의 심리적 갈등과 관계가 없다.
- ③ 체념이나 연민과는 거리가 있다.
- ⑤ 대상으로 인한 화자의 비극성과는 거리가 멀다.

21. [출제의도] 표현상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A]는 ‘신명나지 않았더냐’, [B]는 ‘뉘신고’, ‘뉘던고’ 등의 의문 형식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와 ③은 [B]에만, ⑤는 [A]에만 쓰였고, ④는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았다.

22.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화자는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길이 되고 역사가 됨을 깨닫고 있다. 따라서 힘없는 자들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현실의 고통으로 꺾일 수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내 생각에는 아무리 사또님 영이지만 죄도 없는 사람을 우리 손으로 어찌 죽이겠는가.’에서처럼 인지사정(人之常情) 차원에서 옥단춘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을 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어려서부터의 친구를 죽마를 타던 옛 친구라는 뜻인 ‘죽마고우(竹馬故友)’라 한다.
- ② ‘오만방자(傲慢放恣)’는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를 이르는 말인데, 이때 ‘오만하다’는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하다’는 뜻이고, ‘방자하다’는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 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는 뜻이므로, 잔치에서 거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김진희의 태도를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 ③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짐승의 심리 상태를 ‘사람 얼굴에 동 물의 마음’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 한다.
- ④ 사람으로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 한다.

31. [출제의도]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환난에 빠진 이혈룡을 아무런 대가 없이 구해 주는 옥단춘의 행동은 전형적인 ‘남성 원조형’ 기생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32~34] (고전시가) 작자 미상, 「텐동 어미 화전가」
 <연계 : 수능특강 적용학습 고전시가 08강 - 텐동 어미 화전가>

32. [출제의도]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화자인 텐동 어미가 개가한 후 남편과 함께 도부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힘겨운 삶과,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스러운 삶의 모습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도부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힘겨운 삶의 모습과 남편이 죽고 절망감을 느끼는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자연과의 대비를 통해 이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 ② 도부 장수인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절망적인 정서가 드러나고 있지만, 화자의 정서가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처음과 끝에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
- ⑤ 끝 부분에 도부 장수인 남편이 산사태로 죽으면서 화자의 체념적 정서가 드러나지만, 화자의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다.

33.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먼저 괴질에 죽었다면’은 세 번째 남편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텐동 어미가 먼저 괴질에 죽었다면 세 번째 남편의 죽음을 보지 않았을 거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지, 텐동 어미의 첫 번째 남편이 죽게 된 원인을 말한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텐동 어미와 헤어진 두 명의 남편은 ‘큰 부자의 세간살이’를 지냈었다. 이를 통해 텐동 어미가 헤어진 두 명의 남편은 부유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텐동 어미는 도부 장수인 남편과 함께 남촌북촌에 다니면서 도부 장사를 한다. 이것을 통해 텐동 어미가 기구한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텐동 어미는 남편과 함께 도부 장사를 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돈을 모으려고 하면 한 명이 병이 나서 돈을 모을 수 없게 되어, 결국 돈을 모으지 못하고 한 푼 없이 다 쓰게 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세 번째 결혼 생활에서 텐동 어미가 경제적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텐동 어미와 함께 도부 장사를 하던 남편이 머물던 주막 뒷산에 산사태가 일어나 주막을 휩쓸고 간다. 이를 보고 텐동 어미가 ‘살아날 이 누굴런고’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세 번째 남편마저 잃었음을 알 수 있다.

34.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화자는 도부 장수인 세 번째 남편의 죽음 때문에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 ㉠에서 화자는 ‘이런 팔자 또 있는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이러한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두 사람의 나이와 처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인물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 ② ‘고진감래’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뜻으로, 이러한 관용적 표현을 통해 도부 장수인 남편과 화자의 상황이 앞으로 좋아지기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③ ㉡은 도부 장사를 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상황을 신체적 변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지만, 남편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 ⑤ ㉢은 텐동 어미의 태도를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산사태로 인한 남편의 죽음으로 절망감에 빠져 있는 텐동 어미를 그 집덕네가 위로하는 말이다.

[화법과 작문]

35	③	36	④	37	①	38	④	39	④
40	③	41	⑤	42	②	43	③	44	④
45	③								

35. [출제의도]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3문단, 4문단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복원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5문단 첫 문장을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술은 문화유산 복원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진술된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5문단 2번째 문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도 관심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라고 진술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②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 성공한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학술 분야 간의 연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찾을 수 없다.
- ④ 문화유산과 관련된 산업의 발전 가능성, 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⑤ 문화유산 훼손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36. [출제의도]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청중 분석을 통해 청중이 ‘발표 내용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요구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발표에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기로 계획했으나 실제 발표에는 직업을 소개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5문단에서 학교 인근에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곳에서 디지털 기술로 복원한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으니 함께 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㉔에서 언급한 도서 확충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43.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가)에 제시된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영하여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면 관심과 흥미에 따라 다양한 퍼네이션’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동아리와의 연계 활동을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 제시된 ‘우리 동아리의 특색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영하여 (나)의 1문단에서 ‘다른 봉사 동아리와 달리 특색 있고 재미있는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퍼네이션과 같은 기부 활동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 ② (가)에 제시된 ‘퍼네이션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영하여 (나)의 2문단에서 ‘퍼네이션(funation)’은 재미(fun)와 기부(donation)를 결합한 말로, 일상에서 재미있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로 기부하는 봉사 활동’이라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④ (가)에 제시된 ‘우리 동아리의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영하여 (나)의 3문단에서 ‘우리 동아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나눔의 마음이며, 우리 동아리의 선발 기준도 나눔의 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 ⑤ (가)에 제시된 ‘가입 후 자신이 무슨 활동을 할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영하여 (나)의 4문단에서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은 퍼네이션 애플리케이션 개발,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퍼네이션 홍보’를 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나눔은 내가 베푸 마음이 누군가에게 퍼져 모두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내용은 나눔의 의의를 밝힌 것이다. 또한 ‘우리 동아리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경험을 해 보지 않으시겠어요?’라는 문장은 의문문의 형식으로 동아리 가입을 권유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눔의 의의를 밝히고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고는 있으나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② 나눔의 의의를 밝히지 않았으며, 의문문을 사용하긴 했지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 ③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동아리 활동의 의의를 밝혔을 뿐 나눔의 의의는 밝히지 않았다.
- ⑤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라는 진술을 보면, 나눔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나눔의 의의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문문을 사용하긴 했지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45. [출제의도]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㉑-2는 학교의 학생들의 88%가 주 4회 이상 SNS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리고 ㉒은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봉사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할수록 진로 의식의 성숙도가 높아진다는 보여 준다. 그러나 ㉑-2를 통해 학생들이 SNS 이용 목적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SNS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1은 학교의 학생들이 기부 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기부 활동에 ‘관심이 없어서’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나)의 3문단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경

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㉑-1을 활용하여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에서 ‘기부에 관심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수 있다.

- ② ㉑-1을 보면 학교의 학생들이 기부 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방법을 몰라서’임을 알 수 있다. (나)의 4문단에서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㉑-1과 연관 지어 보면,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부 방법을 모르는 학교 학생들이 기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나)의 4문단에서 동아리의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퍼네이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㉒과 연관 지어 보면, 동아리를 통한 자발적인 봉사 활동이 진로 의식의 성숙도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 ⑤ ㉒은 퍼네이션을 위한 게임 애플리케이션은 재미있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퍼네이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나)의 4문단에서 퍼네이션의 일환으로 최근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㉒과 연관 지어 보면,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것은 사람들이 퍼네이션에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35. [출제의도] 시간 표현, 높임 표현, 국어의 음운 체계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㉑에서 말하고 있는 구어체 명령형 종결 어미 중에서 ‘-아라/-어라’는 동사 어간의 음운 환경에 따라 변하므로 음운론적 이형태라고 할 수 있고, ‘-거라/-너라’는 동사 어간의 음운 환경과 관계없이 변하므로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할 수 있다. ㉒에서 말하고 있는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는 앞에 오는 말의 음운 환경에 따라 변하므로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는 각각 음운론적 이형태라고 할 수 있다. ㉓에서 말하고 있는 객체 높임 표현에 사용하는 특수 어휘는 각각 독립된 단어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형태로 설명할 수 없다.

36. [출제의도] 단어의 이해-합성어와 파생어 분석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까끄라기’는 ‘까끌-+-아기’로 분석되는데 ‘꺼끄러기’와 비교해 보면 ‘-아기’와 ‘-어기’가 어근의 음운의 환경에 따라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까끄라기’는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할 때 접미사가 바뀌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뻬-’과 ‘메-’는 같은 의미를 지닌 접두사로, 결합하는 어근에 따라 바뀌어 나타나므로 접두사가 바뀌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② 접두사 ‘갈-’에 ‘까마귀’가 결합하면서 ‘가마귀’로 변한 예로, ‘까마귀’와 ‘가마귀’는 형태론적 이형태로 어근이 바뀌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③ ‘구이’는 ‘먹이’, ‘높이’ 등과 비교할 때, 접미사 ‘-이’는 그대로인데 어근인 ‘굽-’이 ‘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뽀-’는 ‘-으뽀뽀하다’와 결합하고, ‘푸르-’는 ‘-데데하다’와 결합한다. 이는 어간의 음운 환경에 따라 접미사가 바뀌는 예라고 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안은문장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㉑의 ‘가을로’는 안은문장(전체 문장)의 부사어이고, ㉒의 ‘햇별을’은 안긴절이 아니라 안은문장(전체 문장)의 목적어이다. ‘햇별을’은